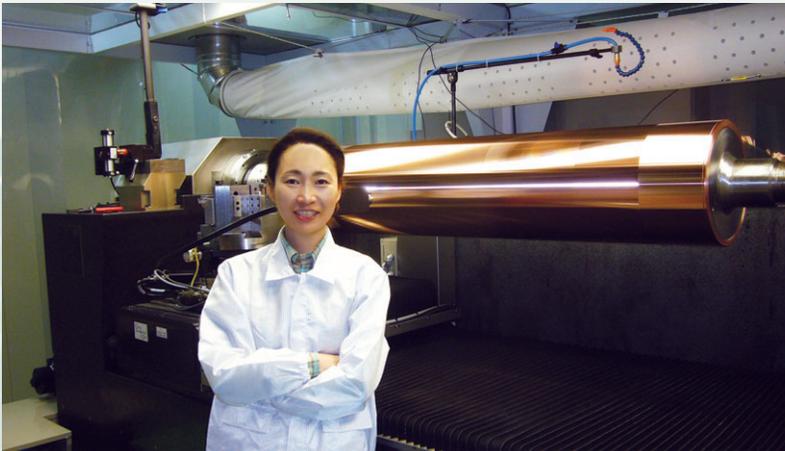


코아옵틱스

기술과 기획력의 조화가 원천기술을 탄생시키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것을 돕는다고 한다. 원하고 또 그만큼 노력한 끝에 기술력이라는 날개를 단 벤처를 만났다. 코아옵틱스(대표 정윤정, www.coreoptics.co.kr)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LCD 부품소재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제품공급에 들어갔다.

코아옵틱스의 대표핵심기술은 바로 '대대면적 미세가공공정 원천기술'.

LCD는 자체 발광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LCD제품의 화면을 보려면 빛, 흔히 BLU라고 불리는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이 필요한데, 이 BLU의 휘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광을 담당하는 광학필름이 장착된다. 아울러 빛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학필름에 정밀한 패턴을 새겨야 한다. 이 공정에는 도장에 문양을 새기듯이 마스터 롤이라는 장비 표면에 특정 패턴을 새겨 광학필름을 찍어내게 된다.

코아옵틱스는 이 마스터 롤에 미세한 패턴을 새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대면적(평판롤)에 마이크론 단위의 미세한 패턴을 50nm정밀도로 가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마스터 롤도 양산기기를 도입, 코아옵틱스의 대면적 미세가공공정 원천기술을 연결하였다. 덕분에 국내 광학필름업체들은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대당 1억5천만 원에 수입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수입 마스터 롤을, 대당 4천만 원 수준에 인도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코아옵틱스가 내놓은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정윤정 대표는 창업의 계기를 "의미있는 일이 하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창업 전까지 대기업에서 기획업무에 몸담아왔던 정 대표는 '뭔가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막연한 소망을 유난히 지인이 많았던 디스플레이 부품소재분야에서 구체화 하게 되었다고. 그때가 2001년. 이후 코아옵틱스는 기술, 자금, 인력관리를 아우르는 정 대표 특유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거름삼아 쑥쑥 성장하게 된다.

먼저 내재된 기술을 다수의 특허등록 및 인증획득으로 외부에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략적으로 관련 대기업에서 자금을 유치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 및 향후 5년 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의 정부 사업을 활용하여 R&D 비용의 많은 부분을 충당, 지금의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게 된다.

아울러 중소벤처의 특성상 핵심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직시하고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배분하여 주인의식을 높였으며, 교육에 확실한 투자를 해 조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대표 IT 제품 LCD. 그러나 LCD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명성은 사상누각일 지도 모른다. 때문에 코아옵틱스의 원천기술 상용화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우수한 기술을 만들어 낸 코아옵틱스의 연구원들. 제품개발을 위해 세계 어디든 달려가는 열정으로 회사를 이끈 정윤정 대표의 기획력. 이들의 조합은 앞으로 코아옵틱스가 우리 LCD 부품소재업계의 큰 발전을 이끄리라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